

中정부, 안방보험 접수... 동양·ABL, 매각 1순위로?

(안방보험 자회사)

안방, 10년만에 자본금 100배 ↑
감시결과 순환출자 증자 드러나
동양·ABL '오너리스크' 불가피
저축성 비율 높고 내실 못다져



뤼젠룡 동양생명 사장.



중국 안방보험그룹.

중국 안방보험그룹을 대주주로 둔 동양 생명과 ABL생명에 또 다시 위기론이 불거졌다. 중국당국이 최근 안방보험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문제 삼아 회사 경영권을 접수하고 우사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을 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국내 계열사인 두 보험사의 경영진 교체 가능성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보험회계기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로 수익성을 높여오던 두 보험사로선 대주주인 안방보험의 자본확충 등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일각에선 두 보험사가 M&A 시장에 또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우사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의 경제범죄 연루 혐의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안방그룹에 대한 1년간의 위탁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인민은행 등 5곳 부처가 경영관리팀을 구성하고

내년 2월 22일까지 안방보험을 위탁경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보험회사는 "안방그룹의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보험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설립 10년 만 자본금 100배 증가

우사오후이 안방그룹 회장은 그간 막대한 자본과 정치적 인맥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해외 M&A를 실시했다. 고객의 납입 보험료를 활용,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보험사가 과도한 레버리징 및 무분별한 확장 정책으로 불과 설립 10년 만에 자본금만 100배 넘게 증가하며 중국 보험업계 1위에 올랐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동양생명·ABL생명을

포함 해외 M&A에만 약 160억 달러, 우리 돈 17조원을 사용했다. 2014년 10월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 19억5000만 달러, 2015년 6월 동양생명, 2016년 12월 ABL생명 등을 인수했다. 중국당국은 안방보험의 이 같은 확장세를 주시, 감독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 증자가 순환출자 형태로 드러나면서 무리한 경영을 지속해왔다고 판단했다.

안방그룹은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해외 자회사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그룹은 이어 "안방그룹의 민영 기업 성격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경영권 박탈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다.

◆동양·ABL생명, '오너리스크' 불가피

다만 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했다. 국내 계열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오너리스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안방그룹의 해외 자산에 대한 매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당국이 이번에 경영권을 잡으면서 수십조원대의 안방그룹 해외 부동산은 매각 1순위로 평가된다. 안방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등을 이유로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외형확대에 주력하며 저축성판매 비율을 높여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계기준 IFRS17 시행까지 불과 3년 뿐이 안남았다"며 "새로운 회계제도 하에선 저축성보험이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식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해 왔지만 양사는 대주주의 막대한 자금을 의지하며 저축성 판매를 늘려온 바 차후 '화(禍)'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지난해에만 대주주인 안방보험으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받아 자본을 늘렸다.

양사는 그러나 안방그룹의 해당 이슈가 자사에는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독립법인 체제로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안방그룹 인수 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인 19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148억원 대비 무려 1203.2%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98억원 적자에서 2466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총자산은 13.6% 증가한 30조 3439억원으로 창사 29년 만 3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최근 동양생명 이사회는 1주당 3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4.5%, 배당성향은 30.4%다.

동양생명은 또 오는 26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현재 구한서 사장과 뤼젠룡 사장의 공동 대표 체제에서 뤼젠룡 대표이사 단독으로 체제를 바꾼다. 이날 뤼젠룡 대표이사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구한서 사장의 연임안은 내지 않을 예정이다.

뤼젠룡 신임 사장은 동양생명을 인수한 안방그룹의 안방손해보험 푸젠지사 총경리, 광둥지사 총경리, 총경리 보조, 부총경리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5년 9월 동양생명 부사장, 2017년 9월 동양생명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P2P연계 대부업자 금융위에 등록해야 영업

오늘부터 위반면 최대 징역 5년
104개 대부업자·전체 55% 등록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무등록 영업 업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P2P대출업에 대한 감독관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선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

예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일 기준 총 104개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크라우드연구소의 집계 따르면 1월 말 현재 P2P대출업체는 188개로, 전체의 55% 가량이 등록한 셈이다.

기존 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무등록 영업'으로 취급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업무를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대부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다. 금융위는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

에게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P2P대출 이용 시엔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NH농협銀, P2P금융협회서 공로패 받아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핀테크 산업과 P2P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됐으며, 64개 회원을 통해 누적 대출액 2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나선 주재승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 부행장은 "금융업에서도 핀테크 신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에 연결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연결플랫폼, 대안금융의 한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있는 P2P금융업계



주재승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 부행장이 지난달 27일 제2회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고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에 건승을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응원해 주세요"

NH농협銀, 폐북·인스타서 이벤트

NH농협은행은 3월 한 달 동안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응원 댓글 이벤트'를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농업인의 근로환경, 노동시간, 소득수준 등에 관한 콘텐츠를 보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공감의 댓글을 달는 형식이다. 총 430명의 당첨자에게 농협몰을 통해 천혜향 6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이 지난 2월부터 펼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대훈 은행장(왼쪽)이 농가소득 5000만원을 상징하는 다섯 손가락을 펴 보이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SNS 이벤트는 약 4500여 명이 댓글로 참여했으며, 총 500명의 당첨자에게 농협몰을 통해 고구마 10kg이 경품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대훈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범농협 수익센터로서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증대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IT R&D 센터 재구성 등 '디지털 금융 선도' 중점

DGB대구은행, 조직 운영계획 발표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28일 IT본부 산하 디지털(Digital)IT R&D(연구개발)센터의 조직 재구성, 인재 육성, 외부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8년 조직 운영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IT R&D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정보기술(IT) 신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R&D 활동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센터 내 운영 목적에 따라 정규 랩, 산학연계 랩, 기술 랩, 비즈(Biz)연계 랩 등 4개의 단위조직으로 구성, 운영한다.



DGB금융그룹 제2본점. /DGB대구은행

센터는 지난 23일 직원 공모를 통해 선 발된 랩장(長)을 포함한 모든 랩 구성원들과 함께 킥-오프(Kick-off) 행사를 통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참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고 센터 개소식도 마쳤다.

센터는 IT본부 전 직원들의 디지털화된 사고방식과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과정 개설, 스터디 그룹 운영,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직원에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벤치마킹과 세미나, 각종 교육 참석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 성과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보상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